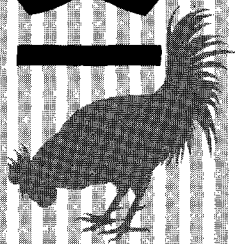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일본

산란계 사육수수 0.4% 증가, 사육농가는 4% 감소

일본의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가 2월 1일 현재로 축산통계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란계 사육수수가 145,467천수로 지난해에 비해 0.4% 증가한 반면 사육농가수는 6,530호로 4%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규모별로 보면 10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수는 330호로 전체 5.2%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농가가 사육하는 사육수수는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농가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보면 사양가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외에 사육환경의 악화,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 사양가들이 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계에서는 사육호수 중 학교, 시험농장 등 비영리 사업체는 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300수 미만 농가는 역시 포함시키지 않았다.(鶏鳴新聞)

동경과 구미 주요도시 소매가 비교

농무부가 동경 및 세계 주요도시의 식료품 소매가격('96. 11월 현재)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42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경 외 뉴욕, 파리, 런던, 함부르크의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을 조사하였는데 동경을 100으로 볼때 뉴욕 75, 런던 106, 파리와 함부르크는 85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닭고기의 소매가는 구미 도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런던의 경우 동경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소고기의 경우 아직 세계 여러 도시가 동경가격 보다 저렴한 반면 돼지고기는 런던이 동경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HK)

브라질

전체 고기소비량 증가, 닭고기 소비량은 주춤

브라질의 지난해 고기(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소비량은 '95년 도에 비해 40만톤이 증가하여 거의 천만톤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닭고기 소비량은 350만톤으로 전체 소비량중 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해는 '95년에 비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약간 줄어 22.3kg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닭고기 가격의 큰폭 상승에 원인이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닭고기 제품 외에 타육류의 가공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데 원인을 찾고 있어 닭고기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업계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WP)

덴마크

케이지사육 전환 문제, EU에 협조요청

유럽협의회(EC)에서는 덴마크가 산란계 케이지 사육을 포기하는 사양가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온 것에 대해 허락의 의사를 밝혔다. 덴마크의 채란업자들은 유럽 전역에서 일고 있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 실시되어지고 있는 케이지 사육 전환문제로 케이지 사육 업자들은 케이지 사육을 포기 또는 전환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케이지사육을 전환할 경우 현재의 생산 규모 이상을 늘릴 수 없으며 협의회에서 허락한 내용중 최고 투자비용의 35%정도밖에 지원이 될 수 없어 농가들에게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정부에서는 실상 케이지사육을 복지 차원에서 전통적인 재래식 양계장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투자비 보다 초과할 수 있음을 유럽협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개선책을 논의하였는데 이 문제가 확대될 경우 판매수익에서 손

실이된 부분까지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I)

불가리아

양계산업 경쟁력 상실, 위기 직면

불가리아의 양계업자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불가리아의 한 양계 육종관련 단체에서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주에 소속된 농장들이 큰 빚더미에 올라있으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대출자격을 상실할 정도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리아의 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양계장은 총 45개로 그중 5개 농장만이 개인적인 사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생산량 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생산량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속 농장 외에 개인 소유권이 있는 200여개의 대형 농장들이 생산하는 닭고기의 비중은 75%, 계란은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은 사료가격의 인상이 계속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 '96년에 생산된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도에 11만8천톤에 훨씬 못미치는 7만톤이 생산되었으며 '96년 계란생산량도 전년도에 20억개에서 16억개로 큰폭 감소하였다.

관계자는 불가리아의 양계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라 지적하고 '89년 4만5천톤의 수출량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겨우 8천톤을 수출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덧붙였다.(PI)